

“주입식 교육 회귀…교단 혼란 부를 개악”

교육회의 대입 개편 권고안, 광주·전남 교육계 비판 목소리
“수능 위주 정시 확대는 사교육 조장하고 지방학생들 피해”

7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서 수능위주 전형(정시모집) 선발 비중을 현행(전체의 20% 수준)보다 늘리라는 권고를 내놓자 지역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교단에서는 수능 위주의 정시확대 기조로 대입제도가 개편되면 주입식·문제풀이에 편중됐던 과거 교육으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 학부모 등은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돼 수도권이나 대도시 거주 학생, 재수생만 이득 보고 광주·전남 학생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광주시교육청 김형진 장학사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대로 대입제도가 개편되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까지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고교 교실은 토론과 독서, 체험활동, 수행평가 등을 중심으로 수업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정시확대로 방향이 바뀐다면 ‘학교 교육 따로, 대학 입시 따로’라는 앞뒤 안 맞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일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조사 결과를 내놓자마자 “정시 확대, 수능 상대평가 유지”는 학생 선택권 존중·자유학기제 활성화·고교학점제 추진·인성과 창의성 교육 등 학교 교육 어느 하나도 추진해 낼 수 없게 하는 개악”이라며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당시 입장문에서 “정부와 교육부가 꾸준히 유지해온 수시확대 원칙에 따라 대입준비 체제를 수년동안 갖춰온 고교 현장에 큰 충격과 허탈감을 줄 것”이라며 “또한 미래세대에게 입시경쟁과 서열화라는 악순환을 부추기고, 학생들을 또다시 5지 선다형 문제의 틀에 가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도 이번 대입개편 관련, ‘정시 확대 반대, 수능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가 지역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수능 점수로 진학하는 관문이 넓어지면, 재수생이나 사교육 환경이 좋은 수도권 등 대도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팀 안희룡 장학사는 “전남에서는 극히 일부 교고를 제외하면 정시확대를 반길 교고가 없다고 보면

된다. 수능 위주 정시 확대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시험을 많이 치른 재수생이나 사교육을 잘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녀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형편이 되는 학부모가 적은데다, 형편이 되더라도 사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남지역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사립교고를 중심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정시확대 움직임에 반기는 곳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수시전형의 복잡함 때문에, 그간의 수시 확대 기조 속에서도 곳곳하게 ‘수능에 올인해 온’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체험 및 봉사활동 등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시전형에 불만을 가져온 재수생 그룹 역시 국가교육회의의 정시확대 권고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학평가 지역 특수성 고려해야
이용섭 광주시장 성명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지역의 특수성 고려한 대학평가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지역대학에 대한 평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지역 사회의 역할과 책임 등을 감안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 시장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대학평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면서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대학을 평가한다면 지역대학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교수들 “획일적 대학역량평가로 지방대만 피해”

지역 대학 육성정책 세미나
“1차 탈락대학 88% 지방대
기업 퇴출식 구조조정은 위험”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 자율 개선대학(우수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전체 41개 일반대학 가운데 36개 대학(87.8%)이 지방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 대학 교수 등은 이를 ‘잘못된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의 피해를 지방대학이 지게 된 방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

발제자로 나선 최현주 순천대 교수(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는 “2018년 평가에서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에 지역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지방대학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실제 자율 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41개 일반대학 중 87.8%(36개 대학)가 지방대학”이라고 지

적했다.

최 교수는 문제점으로 ▲대학의 총체적 평가로는 부족한 지표항목 ▲정성지표 비중 증가로 자의적·주관적 평가 결과 도출 ▲평가 직전 평가지표 제시로 정상적인 대학발전 기회 박탈 등을 지적했다.

이어 “평가 주관기관인 교육부의 권력 편향성이 평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2단계 평가에서 비리 대학을 감점대상으로 삼는 것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병근 조선대 교수(민교협 조선대분회)는 ▲대학 서열

화를 조장하는 평가 ▲타당성 없는 평가 ▲수도권 편향적인 평가 ▲지방대학의 역할을 무시한 평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낮은 평가 등을 들어 대학역량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재인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은 기업이 아니며 마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듯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매우 위험하다”며 “무리하고 획일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6

해질녘 19:29

달뜨기 02:02

달짐 16:35

소나기에도 무더위 지속

전남 동부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 많음 26/36

보성

맑음 24/34

목포

맑음 27/34

순천

구름 많음 26/35

여수

맑음 26/34

영광

맑음 26/34

나주

구름 많음 26/36

진도

맑음 26/34

완도

맑음 26/34

전주

구름 많음 27/35

구례

흐리고 한때 비 25/35

군산

구름 많음 26/33

강진

맑음 25/34

남원

흐리고 한때 비 25/36

해남

맑음 25/34

흑산도

맑음 26/32

장성

맑음 25/35

진천

☀

서울

☀

강릉

☀

대전

☀

충청

☀

대구

☀

부산

☀

제주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면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1.0~2.5	북동~동 1.0~2.0		
	면바다(서)	북~북동 1.0~2.0	북서~북 1.0~2.0		

◇생활지수

위험

매우 높음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30	10:46
	16:35	23:55
여수	00:02	06:04
	12:11	18:59

◇주간 날씨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	☀	☀	☀	☀	☀	☀
26/35	26/35	26/35	25/35	25/35	25/35	25/35

전남경찰 체감안전도 3년 연속 전국 1위

전남지방경찰청이 3년 연속 체감안전도 전국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전남경찰청은 “경찰청이 시행한 2018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화 설문 등을 통해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경찰서 252곳(전남 21곳) 주민 각 100명씩을 대상으로 거주지의 범죄·교통사고 안전도, 범죄자 준수도 등을 조사했다. 전남청은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도 종합점수 76점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했다.

전국 평균은 73.1점 이었다. 전남청은 47개 평가항목 중 전반적 안전도 77.3점과 범죄 안전도 83.0점, 범죄자 준수도 72.0점 등 3개 항목에서 모두 전국 1위에 올랐다. 전남청은 특히 이번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도·농·북·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체감 입은 시민이라는 자제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전남경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안~양양 하늘길 열린다 금·토·일 주 3회 운항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0일부터 금·토·일 주 3회 무안-양양 노선을 왕복 운항한다고 7일 밝혔다.

운항 항공사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KEA)이며, 운항시간은 무안공항 출발 오전 10시, 양양공항 출발 오전 11시50분이다. 소요 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편도 요금은 성인 9만4000원, 어린이 7만6000원, 군인 7만1500원이다. 기타 할인

은 홈페이지(www.keair.co.kr)를 참조하거나 1588-2682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국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은 “무안-양양 노선은 전남과 강원을 잇는 하늘길로 그동안 취학했던 대중교통망을 보완하는 의미있는 운항”이라며 “지역민들에게 보다 많은 항공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결같은 믿음,
좋은 시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스마일장비 2대 운영

Best Skilled 닥터 선정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융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